

2017년 5월 19일, 조천읍 선흘1리 선흘1리노인회관, 강수경 조사.
부순아(여, 1927년생, 조천읍 선흘1리)

• 줄거리: 사촌과 함께 유채를 베러 갔는데 안개가 좀 끼고 날씨가 좋지 않았다. 유채밭에 가보니 유채가 다 익지 않았다. 사촌은 익은 유채가 얼마 없으니 혼자 해도 되겠다며 집에 갔다가 내일 온다고 하였다. 그러라고 하고 혼자 익은 유채만 훑으는데 꿩 우는 소리가 들렸다. 소리가 나는 쪽으로 가도 꿩은 날아가지 않아서 이상하다 여겨 돌을 던졌다. 돌을 던지니 이제는 그 옆에 나무 아래서 꿩 우는 소리가 났다. 다시 그 나무 아래에 돌을 던지니 또 자리를 옮겨서 계속 소리가 들렸다. 이젠 머리카락이 쭈뼛 서고 겁이 나서 몸을 가눌 수가 없었다. 그래도 밭에서 나가려고 호미 들고 점심 그릇을 졌다. 돌을 들고 염불을 계속 부르니 이젠 길 옆 동산에서 꿩 우는 소리가 들렸다. 돌을 두드려서 돌가루를 내고 길로 나와서 다시 앉아서 염불을 부르면서 돌가루를 계속 냈다. 이젠 꿩 우는 소리가 동산 소나무 위에서 들렸다. 해는 지고 안개가 끼니 이젠 안 되겠다고 생각해서 집으로 오는데 계속 꿩 우는 소리가 들렸다. 그래도 돌멩이를 안고 집 앞까지 와서 골목에서 뒤로 던지고 뒤도 안 돌아보고 집으로 가니 도깨비에 훌리지 않고 살았다.

[조사자] 어르신 실제로 도깨비에 놀래가지고 굿했던 이야기 잊수게.

[제보자] 아니, 굿 그때는 많이 헷저. 어린 때는.

[조사자] 거난.

[제보자] 그냥 흑교에 뎅기당도 도깨비 들령 굿허곡. 어디 강 일허당 완, 저 밧디서 저 우리 종순 메누린 밧디 간 검질 메당 융이 영 여름에 조라우난 영 헌디 도체비 걸련 굿허곡.

[청중] 어둑운 땐 뎅기당 보민 그런 불 비추는 걸 봐.

[제보자] 옛날은 불이 잊어낫주게. 잊어낫어. 헛불이.

[조사자] 봐낫수과? 도체비 봐낫수과?

[제보자] 난 보진 안 허고이. 이거 멧 년 안 됧저. 유채 갈 때. 유채 갈아나건 디도 멧 십 년 뛰엇어이. 이젠이.

[청중] 하이고 춤 멧 십 년.

[제보자] 온밧디 보리 갈곡. 경주아방 밧을 빌언에 유챌 갈았주. 지금 저 공동장 현 밧디. 이젠 보릴 못 비난, 시에 우리 속춘이 나보다 혼 나 위라. 혼자 사난.

“성님 왕 보리 비어줍서.”

허난, 오란 보릴 비는디. 큰밧디 간 보리 비단 쪼금 해가 남은 거라. 거문 막 그

날 안개 전 호끔 안 존 날이야. 안개 폭 끼친 날인데. 보리 빌 때난 이빨 거야 아마. 이때 전인가 모르겠는데. 이젠 그디 보리 비단. 나도 나주. ‘성님이랑 갓당 따시 옵센.’ 허컬.

“저 밧디 강 유채 호끔 돌르당 가겐.”

헤연. 온밧디서 그때사 무신 차가 시냐. 무신 구르마가 시냐. 걸어았언 온밧디서 그 동산을 간 거라. 간. 여기 산 잊고 밧이 이렇게 된 밧이라이. 요단 질이니까 이디 들어간 점심 그릇을. 이제 그 점심 그릇에 호미에 놓고. 난 이건 실지 이건 내가 당헌 거라. 호미영 점심 그릇이영 이레 놔 된. 문딱 안 익언. 유채가 요렇게 벵허게 익은 디. 이건 놈이 밧이라. 이건 놈이 밧이고 요만쪽이 오난. 이젠 호미 이디 놔 된. 그자 익은 덜로 그자 호썰 돌랑 하영도 아니 요만쪽이 오난 츠춘이.

“에에. 느만 헤도 허켜. 날랑 갓당 낸랑 오마.”

경 허난.

“경 협서 성님 갑서.”

성 보내된. 요영 돌아온다. 아 이디서 그냥 펑빙에기 소리가 하도 나는 거라. 펑빙에기 소리가. ‘원 이상하다. 아 절로 영 오난 펑 잇이민 놀아날 텐디.’

이젠 내가 요??정 온 거라. 이디 나가 우리 유채 비명 온 거라이.

이젠 일어산 요디 돌은 흙은 거 아니고 담 앗안 이레 팡허게 데꼈지. 펑이믄 맞던지 놀아나라고. 이레 데끼난 아 이젠 난 이디서 지금 데낀다. 이디 맹계낭 자울 알에 오란 웨는 거야. 쉘쉘 그냥 하도 웨언.

이젠 다시 일어산 이젠 돌을 앗안. 이거 원 쯤 거짓말이엔 혈 거여. 팡허게 맹계낭 자울더레 낫주게. 그 담 질러레. 팡 허게 노난. 아 뜨로 이젠이 나 호미 논. 요 너른 디. 지금 그 산 쓴 디 말고 낭 싱근 디 오란 아 그렇게 웨질런. 아 이젠 나올 수가 엇어. 헤는 져 오고. 안개는 폭 끼친 날인디. 이젠 이디 나오라야. 영 나오라야 아스팔트 길인디. 아 이거 이디서 웨어가난 그땐 머리콜이 과짝헤라게.

[청중] 돌ㅋ루 뺏아가민 그게 엇어진덴.

[조사자] 골읍서.

[제보자] 두 번을 앗앙 팡허게 노니까 아 따시 이디 오란 웨니깐 그때부턴 머리가 나가 과짝 상, 어떻게 혈 수가 없어. 몸을 가눌 수가 없어.

[청중] 직성이 쐐난 경 헷주. 경 안 헷이믄 놀랠 거주.

[제보자] 아. 큰일나겠다. 이젠 해는 진 때고. 나가 이제 이딘 나오란 요디 나오믄 아스팔트주. 이딜 나오믄 게도 차도 뎅기곡 사람도 뎅기곡 헨디. 머리가 상 나올 수가 없어. 이젠 허단 버천. 이디 죽건 죽젠후란, 호미 들르고 점심 그릇은 들러메곡. 이젠 여기 큰돌이 잇어이. 저 핏내. 돌을 들러가지고 나무아미타불 불르멍 막 그냥. 막 헷지.

막 염불을 오래 불렷어. 아 경 헤가니까 이거 아스팔튼디 이젠 그 동역이네 그 높은 동산에 오란. 이 질로 나가 나와야 훨 건디. 이 동산에 오란 또 웨는 거라. 이

것이. 원 죽으믄 죽어도 나가 질례에 나가야 뭐지.

이젠 그 돌 뭇는 걸. 도체빈 그 돌?루 냄새 나민 도망간덴 허주게. 그놈을 안아 앗언 막 염불 불르멍 닐 꿀고, 신작로에 나오난 따시 그냥 발 범엉 앗앙 막 팡팡 두 드렸어. 경 헤도 이젠 그 동산 위. 그 앞이 소낭 잊어낫주. 큰 동산, 큰 소낭. 아 동산 까지. 이젠 소낭까지에서 웨는 거라. 어떻 헐 수가 없어가지고, 이젠 이 돌 무상 막 뭇단 이젠 해는 지고개 안개 진 날이난. 이렇게 안고 이젠 헐 수가 엇인 거라. 좌순자 네 밧까지 오라도 그 웨는 소리가 들려. 그디서. 경 헤도 막 그 집이??장 이걸 안양 오란 집더레 들어갈. 골목더레 들어갈 땐 영 데껴도 가난. 나 도체비 안 들령 살안.

[조사자] 아까 뭐, 들령 왓당, 데껴볼엇?

[제보자] 돌멩이, 돌멩이. 돌?루 냄새 나면은 도체비는 돌아난다 허니까. 팡팡 막 무신 걸 안아 앗언 골목더레 집이 들어가젠 허난 이렇게 데껴 뒤도 안 돌아보고 그냥 가난 나가 산 거라. 나 원 촘.

[청중] 직성이 쎄니까 경 안 허시믄 놀랠 거주.

[제보자] 그냥 놀랠 게 아니고, 어디레 끗엉 갈 거주. 끗엉 가. 놀래믄. 앞이 상 끗엉 간덴 헌다. 옛날 도체비가.

[조사자] 이거는 언제쯤마씨?

[제보자] 유채 갈 때난 오래엇주게. 이제 유채 설르건 디도 오랫에. 유채 갈 때난.

[조사자] 한 삼십년 전이?

[제보자] 삼십 년만 됫이카.

[조사자] 삼십 년 넘어 뵈우다.

[제보자] 오래엿저. 유채갈 때난. 지금 우리 아덜도, 이제 육십이난. 아이고 혔 오십년 된 거 닳다. 오십 년도 더 뭇엇주. 나 유채갈곡 막 보리 갈곡 놀아뎅길 때난.

[조사자] 아. 게난 이제야 아스팔트. 그때 그냥 한질예?

[제보자] 한질. 한질에만 나오면, 차도 뎅기곡. 사람도 뎅기곡 허니까. 날은 해는 이젠 떨 어지곡게. 경 헤가난 바싹 무소완 영 헨 안양 앗언 오란. 영 데껴된 뒤돌아보지 안 헌덴 헌다. 그냥 나도 들은 말이 어른덜앞이 있으니까. 나 이제 생각해도 그 때 내가 조금 헷이믄 홀령 어디레 막 끗어 갈 거주.

[조사자] 도체비는 돌?루 냄새 맡으믄 도망 갑니까?

[제보자] 게. 어른덜이 경 골으난 우리가 아느냐게. 할머니, 어른덜이 경 말해. 만약 드르 에 강 뭇허면 돌?루 냄새 나면은 그것이. 막 팡팡 막 관세음보살 불르멍 막 혔 시간은 그냥 앗앙 막 쎄게 웨엇주게.

[청중] 돌?루 내가 나면 그것이 엊어진덴 허는 거주.

[제보자] 경 헌덴 헌다.

- 핵심어 : 꿩 빙에기 소리, 도체비, 돌?루, 유채밭, 굿, 돌멩이, 관세음보살, 도깨비, 꿩, 돌가루